



별나라 별세상

—평양애육원을 찾아서—

한 타 세

사랑은 대를 이어

산과 들에 온갖 꽃들이 송이송이 피어나고 하늘에선 종달새가 은방울을 굴리는 따뜻한 봄날 우리는 평양애육원을 찾았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태양절을 맞이하며 온 나라 어디서나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지만 여기 애육원은 더더욱 흥성거리고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양절이 있기에 세상사람모두가 부러워하는 제일가는 행복동으로 되었음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반갑게 맞아주는 교양원선생님들과 함께 승엄한 마음을 안고 중앙홀에 들어

섰습니다.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러르는 우리의 눈앞에는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자육자육이 삼삼히 어려왔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고유수와 오가자를 비롯한 곳곳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유격근거지에서서도 제일 좋은 집으로 아동단 학교와 부모없는 아이들의 침실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강반석어머님의 온갖 고생이 다 깃들어있는 돈으로 나쁜 놈들때문에 헐벗은 아동단원들, 살불이 하나 없는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신 대원수님.

해방후에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육아원, 애육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우신 대원수님.

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태양의 넓고넓은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 온 나라의 육아원, 애육원들을 비롯한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 식량과 식료품, 영양식품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나라 아이들 누구에게나 그늘 한점 없이 비쳐주는 파사로운 해살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 눈부시게 빛발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우리는 원장 최송란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애육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마다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희한하여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습니다.

복도며 홀이며 방들마다에서 울긋불긋 빛을 뿌려주는 갖가지 모양의 무리등,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꿀벌, 나비 사뿐히 내려앉은 아름다운 꽃들과 착한 짐승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이 펼쳐진 벽이며 천정, 무지개마냥 색깔고운 원형층층계단을 따라 오르고 또 오르니 하늘나라, 별나라궁전에 올라온듯 온통 눈부시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때껏 본적 없는 황홀한 신비경이어서 그저 《야!— 야!—》하고 경탄에 넘쳐 웨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가슴은 몽클해졌습니다.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또 하나의 소원을 풀어드렸다고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올랐던것입니다.

정녕 평양육아원, 애육원 아니, 온 나라 강산이 밝아지도록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웃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대를 이어 더 활짝 꽃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

머리 끄지 못해요

동화속의 궁전같은 별나라에서 살고있는 아이들은 그에 어울리게 하나같이 오동보통하고 인형극의 주인공들마냥 귀엽고 예쁘기만 하여 모두모두 안아주고 끌어주고만싶어졌습니다.

그 애들과 어울려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잠시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글썄 오래지 않아 학교에 갈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생활하는 방들의 개수와 놀이감이며 맛있게 먹고있는 간식과 반찬가지수들이 얼마인지 모르고있는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자기 집의 방안수가 몇개인지, 자기가 가지고노는 놀이감이 몇개인지, 먹는 음식과 간식수자를 꼽으라면 얼른 잠깐 꼽습니다.

하지만 애육원원아들은 이토록 멋진 궁전에서 살면서도 그 모든것을 손가락이 모자라서 꼽지 못하고있습니다.

행복의 요람인 자기들의 방이 교양실, 잠자는 방, 세면장, 식사실, 놀이실, 지능놀이실, 자연관찰실, 운동실, 야외물놀이장, 실내물놀이장 등 너무나 많고많아서인지...

닭, 오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꿩고기, 철갑상어, 말린 계살을 비롯한 갖가지 반찬가지수와 사과, 도마도, 수박, 꽃감, 잣 등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도 많고많아서인지...

놀이감 또한 승용차, 비행기, 팅크, 권총, 자동총을 비롯하여 각종 인형들과 운동실의 술한 놀이감까지 합치면 그 수가 너무나 많고많아 손가락을 몇번이나 꼽고뽑아도 셀수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놀라와한것은 로라스케트와 수영복, 물안경, 구멍대도 매 아이들이 개개로 다 가지고있는것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니 그 많고많은 수량을 어떻게 다 꼽을수 있으며 어떻게 다 기억할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부모있는 아이들도 이 모든 놀이감과 생활필수품들을 다 가지고있지 못할 것입니다.

한없이 위대하고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이제 이 애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누리고있으며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큰것인지 때가 되면 알게 될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사랑동이들

평양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의 자라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사랑의 꽃수레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궁전으로 이사온 자랑으로부터 받아안은 자랑은 정말 많고많아도 원아들이 제일먼저 하게 되는 큰 자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있는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궁전, 제일 따듯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여기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신 아버지원수님. 육아원, 애육원의 건설형성도안도 보아주시고 세멘트먼지 날리는 건설장에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아버지원수님.

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된 날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할세라 세면장 수전결개위치를 다시 잡아주시고 식사실에 들리시여 장난치던 아이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한 다시며 세면대까지 새로 놓아주도록 하신 아버지원수님...

올해 설날, 하셔야 할 일, 찾으셔야 할 곳 많고많으셨건만 신년사를 마치신 길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 육아원, 애육원부터 찾아주신 아버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진정 따사로운 해님의 사랑을 안으시고 새해 첫 현지지도의 발걸음을 여기 육아원,

애육원으로 옮기신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오면서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선생님들은 얼마나 큰 기쁨에 넘쳤습니까.

아, 하늘땅에 차고넘치는 감격이여! 기쁨이여! 행복이여!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은 여기 평양육아원, 애육원뿐만아니라 온 나라 육아원, 애육원과 집집마다, 거리마다에도 한껏 넘쳐흐르지 않았습니까.

하기에 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보다 행복해질 래일이 눈앞에 어려와 웃음꽃이 만발하고 몸과 마음은 아이들이 손에 손에 들고가는 고무풍선마냥 똥똥 떠서 활기에 넘쳤던것입니다.

설맞이기쁨에 넘쳐있는 자기들을 더 기쁘게 해주시려 새해의 첫 대문을 열고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께 저저마다 조롱조롱 매달리며 원아들은 가득가득 넘쳐나는 자랑보따리를 다 더쳐놓았습니다.

우리 말 공부, 노래공부, 셈세기, 그림그리기 등을 잘해 5점맞은 자랑이랑, 착한 일 많이 해서 빨간 별을 탄 자랑이며 운동을 많이 해서 키가 큰 자랑이랑...

정말 그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앞에 설맞이공연무대를 펼쳐 놓고 피꼴새보다 더 고운 소리로 노래불렀던 귀염둥이들, 당실당실 춤추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재치있게 연주한 재간둥이들의 자랑은 또 얼마나 큼니까.

많은 자랑동이들중에서도 1등 자랑동이는 김진성어린이랍니다. 찾아오실적마다 원수님품에 안겨 뽀뽀를 두번씩이나 한 자랑 끝없는데 그 자랑 더 크라고 세번째 뽀뽀까지 해주시니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몰라 한 진성어린이.

요구르트통을 들고와 깔때기를 쫓아달라고 무릅없이 내미는 자기를 보며 비위가 보통이 아니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대장감이라 칭찬받은 자랑안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김주현어린이.

교양원, 의사선생님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작은 이발을 가려보시고 입안까지 세세히 들여다보시며 치료대책을 세워주신 원수님이 친아버지보다 더 다심하고 자애로 와서 그만에야 《아버지!》 하고 품에 와락 안겼던 표정주어린이.

정말이지 부모없는 설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세라,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낄세라 더 더욱 마음쓰시며 아버지사랑, 친어머니정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자랑이 이들에게는 제일 큰 자랑이었습니다.

《더 좋은 말 없나요?》

여기 행복동이들의 요람, 사랑의 궁전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별세상에 들어선듯 너무도 황홀하여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마다 황홀경, 신비경이고 듣는것마다 가슴뜨거운 이야기여서 우리 기자들은 그저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가, 어느것부터 렌즈에 담아야 할가.

돌아보는 곳마다 사랑의 이야기 넘쳐흐르고 가는 곳마다 행복넘친 아이들의 모습이 새라새롭게 펼쳐지기만 하니...

넋을 잃은채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만 하던 우리는 어느덧 실내 물놀이장에 이르렀습니다.

찰랑찰랑 넘쳐나는 원수님의 사랑인양 맑은 물이 출렁이는 물놀이장엔 또 그대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수조대의 높이며 정상물온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신 원수님께서 아이들이 미끄러질가봐 건설자들이 곰보타일을 정성스레 깔아주었던것만 그마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곰보물주단을 퍼주도록 하신 사연까지 듣느라니 우리의 가슴가슴은 걱정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습니다.

신바람나게 물대포를 쏘는 아이, 구명대

를 메고 물장구와 헤엄치기를 하는 아이들, 버섯모양의 덕수터에서 축복의 꽃보라인양 온몸에 뿌려지는 물보라를 맘껏 맞는 아이들...

우리가 자기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담으려 온 기자선생님들이라는 원장선생님의 말을 듣고 김진남어린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또 텔레비존에 나오나요?》

《그래, 텔레비존에두 나오구 꿀꿀이랑 사슴이랑 너구리랑 많이많이 나오는 〈아동문학〉 잡지에두 나오지.》

《야! 좋구나!-》

진남이뿐아니라 우리를 예워싸고있던 아이들이 짜락짜락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애들에게 우리는 물었습니다.

《그래 어린 동무들, 이런 멋진 집에서 사니까 정말 좋지요?》

《네-》

아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린 동무들은 이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어느분이 지어주셨는지 알지요?》

《네- 압니다.》

짜랑짜랑 울리는 웨침소리에 이어 진남어린이가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며 제법 어른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고맙다는 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나요?》

《으음?!》

겨우 여섯살난 철부지치고는 너무도 엉뚱한 물음이어서 우린 서로 마주보기만 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애들은 눈치가 빠르고 철이 빨리 든다더니...

그것만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 너무도 크고 너무도 한량없기에 교양원선생님들과 줄곧 찾아오는 손님들, 친척들이 눈굽을 적시면서 하는 얘길 들으며 아이들은 생각했을것입니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말이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애들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못 주는 우릴 보며 교양원 장명화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라는 말은 설음과 불행의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애들은 부모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크나큰 행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는 고아란 없습니다.》

걱정에 넘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구김살 없이 방글방글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 행복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아주지 못하는 우리들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제아무리 이름난 문필가라 해도 행복한 너희들의 모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며 무슨 글을 써서 세세년년 다 전해갈수 있겠느냐고 말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대동강너머에 솟은 부벽루가 우뚝이 안겨왔습니다. 그 옛날 다른 나라에까지 그 이름 널리 알려진 한 문인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일만경치에 반해 시를 짓다가 겨우 두줄밖에 못쓰고 그 이상 더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의 재간을 통탄하며 붓을 꺾었다는 부벽루.

하지만 오늘엔 대동강기슭에 우뚝 솟은 사랑의 궁전앞에서, 마당앞 호수가에 덩실하게 솟은 정각을 거닐면서 우리는 자기들의 무딘 펜을 탓하며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길이길이 전해가기 위해 펜을 더 버리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예로부터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에 찾아오시

여 이 애들이 앞으로 인민군대도 되고 박사도 되고 영웅도 될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진 높은 뜻을 여기 원아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크면 무엇이 되겠는가고 묻는 우리의 물음에 그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난 해병이 되겠습니다. 수영에서 난 1등입니다.》

《난 비행사영웅!...》

《나는 영웅두 되구 박사두 되구 다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되알지고 또랑또랑한 여무진 대답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원아들의 잔등을 두드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애들이 타고 노는 장난감말들이 룡마가 되어 저 하늘을 날것이며 이들이 가지고노는 로케트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호로 되어 빛을 뿌리면서 지구를 돌것이며 지능놀이실, 자연관찰실에서 키운 지식으로 자라난 아이들의 앞가슴에 박사메달이 번쩍이게 될것입니다.

정녕 행복한 설날에 해님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안겨 밝게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아이들의 모습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은 앞으로 이렇게 웨칠것입니다.

《은혜로운 태양이 있어 우리들은 스러져가는 별찌 하나 없이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랑, 이 행복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태양을 옹위하는 별, 태양의 위성이 되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저 별들이 찬연한 빛을 뿌릴 우리 조국의 래일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강대해질것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며 정문결에 나란히 내려앉아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별들을 보고 또 보면서 평양애육원을 떠났습니다.